

# 외 부 원 고

국방부 전 인 구 장 군

## 작은 역할들이 모여 아름다워 지는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무언가를 이루고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성공”이라는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또는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누구나 최상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뜻하는 바를 이루기도 하고 이루지 못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는 상태로 살아간다. 큰돈을 벌거나 출세한 듯 보이는 사람은 오히려 더 큰 걱정거리를 안고 있다. 무일푼일 때는 1억원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지만 10억원을 가진 사람은 20억원을 가지고 싶어 역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비교 상대가 있는 한 내가 가진 것, 내가 있는 위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말이다.

사람들은 한가지라도 더 소유하고 싶

어하지만 소유로는 결코 만족감이 충족되지 못한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산 사람도 없다. 그렇다면 그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소유”에서가 아니라 “역할”에서 찾아야 하겠다. 이웃에 대한 역할, 사회와 세상에 대한 역할,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현재도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어떤 식으로든지 주변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일이 얼마나 생산적이며 주변에 힘이 되어주는가 아니면 세상을 어지럽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인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작은 역할이 큰 역할보다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덜 중요한 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연들은 작은 곳, 어려운 곳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작은 곳일수록 더 인간적이고 애틋한 사연들과 직접 접하는 곳이기 때문인 것 같다. 한 방울의 작은 물이 모여 시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어 큰 바다에 이른다. 세상의 큰 물결 흐름도 한꺼번에 바뀌어 지기보다는 작은 변화들이 거듭됨으로써 물줄기가 바뀌어 간다. 어떤 큰 불길도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사람들은 누구나 남으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고 싶어한다. 대우를 잘 받으면 좋아하고 못 받으면 서운해 한다. 남에

계는 30%만큼 대우해 주고 자신은 70%만큼 받으려 하는 것은 나 자신이나 남들이나 다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언제나 40%만큼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니 행복감, 만족감을 느끼기 어렵게 된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친구간, 직장에서도 아래 윗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렇다. 수행이 깊이 쌓인 사람들이야 굳이 좋고 나쁨을 분별하는 마음 자체도 없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자연스러움 그 자체에서 환희심을 낼 수 있겠으나 일반사람들에게는 역시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더 예뻐 보이고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내가 먼저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그 상대방도 또한 나를 즐겁게 해주는 이런 상부상조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 주는 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작은 행복에서 한발 더 나아가간다면 조금 더 큰 뜻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웃과 사회 다수를 상대로 하여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기 개인의 차원을 벗어나 공익을 생각하는 의식은 세상 모두에게 이로움을 주는 하늘의 뜻과도 일치됨에 따라 내가 하는 일에 하늘의 힘이 더해지니 그 도모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 질 뿐만 아니라 그 일의 성취를 통해 얻는 만족감은 자기 자

신에 국한된 일에 비할 바가 아니게 크다.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기운을 축적해 가는 길이 있고 반대로 소모해 가는 길이 있다. 복을 까먹는 길이 있고 복을 키워 가는 길이 있다.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생활습관화 되어 기운과 복을 키워 가는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봄 동산의 풀과 같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날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반면에 그 반대의 습관으로 사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칼가는 숫돌처럼 닳아 없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기운과 복을 키워 가는 소재가 무엇일까? 가장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만날 때, 바로 이때가 복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베푸는 마음과 남을 살리는 일이 나를 살리고 기운을 축적시켜주며 복밭이 커지는 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가짐과 마음씀으로 생활습관화 되면 이웃과 사회에 대하여 좋은 일이 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큰 행복감을 주고 환희심으로 되돌아오니 남을 살리고 더불어 나도 사는 길이 되는 것이다.

국방부 개혁위원회  
신국방추진단장 육군준장 전인구